설교자 인터뷰

박성근 목사 (새누리교회 담임)

2026년 8월 19일

1. 목사님의 설교 여정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처음 신학교에 갈 때부터 목회보다는 가르치는 사역, 곧 신학을 전공하려는 목적이 컸습니다. 그래서 설교학이 아니라 신학을 전공했고, 설교는 신학생 시절 주말 목회를 하면서 매주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의 관심은 성경 본문 자체를 연구하는 데 있었고, 이 습관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본문의 배경과 단어를 연구하지 않으면 오히려 어색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다만 나중에 설교학을 정식으로 공부한 뒤로는 오히려 설교 준비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원칙을 알기 전에는 그저 준비했지만, 원칙을 알고 나니 그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부담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밤 늦게까지, 때로는 새벽까지 씨름한 날도 많았습니다.

이민교회 목회는 한국 교회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성도들의 현실적인 삶을 떠나서는 설교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이었지만, 지나고 보니 그것이 오히려 저의 설교를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 본문은 이천 년 전, 그 시대의 문서입니다. 그 본문을 오늘의 삶에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저는 설교란 과거의 사건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서 원리를 끌어내어 오늘의 삶에 적용하는 작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만든 표현이 "설교의 현대화(contemporize)"입니다. 성도들이 느끼는 현실의 필요(felt need)와 본문이 말하는 진리가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설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들도 본문 풀이를 들을 때는 그저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구나" 하고 듣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과 연결되는 순간부터 자신의 이야기로 듣기 시작합니다. 설교학에서 흔히 하는 말처럼, 설교는 적용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진짜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는 진리를 세우는 기초 작업일 뿐입니다.

돌이켜보면 특별한 여정이라기보다는, 오랜 시간 하나님이 주신 강단의 기회 속에서 하나씩 배우고 다져온 시간이었습니다. 텍사스 댈러스의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에서 8년간 공부하던 시기에는 학업 때문에 목회에 전념할 수 없었고, 이후 현재 사역지로 오면서 본격적인 목회와 설교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 설교에서 가장 기쁘고 즐겁게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목회자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성도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가 가장 큰 보람입니다. 반대로 설교 후에 아무 반응이 없을 때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분들은 얼굴빛이 달라지고, 찬양이 달라지고, 삶의 이야기 자체가 바뀌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제일 기쁩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새롭게 변화된 마음을 고백하시거나, 오랜 방황 끝에 말씀 가운

데 자신의 길을 찾으신 분들을 볼 때, 그것이 목회자로서 가장 보람된 순간입니다.

3. 설교를 하면서 가장 어렵고 도전적이라고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설교 준비 자체는 오랜 시간이 지나며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큰 부담은 설교자가 자신이 전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늘 저를 짓누르는 부담입니다.

저는 설교학 강의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합니다. 설교를 40년 넘게 해왔으니 이제는 익숙해질 법도 한데, 저는 지금도 주일마다 강단에 오르기 전에 떨립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강단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나 강의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무게가 저를 떨리게 합니다. 둘째, 그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 자신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자각 때문입니다. 이것은 설교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이 짊어져야 할 동일한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4. 목사님의 설교 사역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설교자 두, 세 분은 누구이시고 왜 그렇습니까?

제 설교 사역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은 두 분입니다.

첫 번째는 신학교 시절의 설교학 교수였던 조엘 그레고리(Joel Gregory) 박사입니다. 그의 수업은 인기가 너무 많아 정원이 금방 마감되어 직접 배우지는 못했지만, 늘 사모하며 따르고 싶었던 모델이었습니다. 그는 30대에 이미 교수가 된, 타고난 설교자였습니다. 그의 설교는 서론에서부터 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제시해, 회중이 의무감이 아니라 필요를 느끼고 말씀에 귀 기울이게 했습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강해하면서도 마음에 와닿게 전하는 그의 설교를, 저는 매주 녹화해 두었다가 저녁마다 들었습니다. 그는 후에 댈러스제일침례교회(고 W. A. 크리스웰 목사의 후임)에서 사역하다가 어려운 시절을 겪었고, 이후 베일러대학교에서 다시 가르치는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저에게 남긴 가장 큰 영향은 설교의 틀과 예화의 신선함이었습니다. 그는 흔한 예화집을 쓰지 않고, 시사적이고 현안이 되는 이야기를 활용해 늘 생생한 예화를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의 이상근 박사님입니다. 대구제일교회에서 사역하셨고 여러 주석서를 남기신 분으로, 원래는 댈러스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전공한 학자셨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대구에서 그분의 명성을 듣기만 했을 뿐 직접 뵐 기회는 없었는데, 미국 유학 중 댈러스에서 열린 집회에서 처음으로 그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성경 전체와 교회사, 신학을 통째로 꿰뚫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고, 설교자는 설교학뿐 아니라 교회사, 문학, 철학, 신학 전반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한 설교에서, 그는 1장의 "와 보라"(오는 단계), 11장 나사로 사건의 "네가 나를 믿느냐"(믿는 단계), 21장 베드로에게 하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사랑하는 단계)를 신앙 성숙의 세 단계로 엮어내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통찰을 그때 처음 경험했습니다. 이 두 분은 지금도 떠올릴 때마다 깊은 감사를 느끼게 하는 분들입니다.

5. 설교를 준비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책을 소개하여 주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을 통해 설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신학교 시절 배운 교

재가 지금까지도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교재는 1963년에 출간된《Steps to the Sermon》으로, H. C. 브라운(H. C. Brown Jr.), 고든 클리너드(Gordon Clinard), 제시 노스컷(Jesse J. Northcutt) 세 분이 공동으로 쓴 책입니다. 오래된 책이지만 지금도 여러 신학교에서 교재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은 화려한 설교 기법을 다루기보다, 설교를 세우는 데 필요한 기본 원칙과 뼈대를 제시합니다. 저는 지금도 설교를 준비하거나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 책에서 배운 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해 설교나 현대적인 설교 기법을 다룰 때는 여기에 필요한 요소를 더하기도 하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기본 골격으로는 이 책 하나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6. 설교에 사용하는 예화를 어떻게 수집하십니까?

저는 이미 잘 알려진 예화집을 전혀 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누구나 아는 영화 이야기는 성도들에게도 익숙해서 진부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굳이 그런 영화를 쓸 때도 적용 지점을 조금 다르게 비틀어서 사용합니다. 주로 잡지, 신문, 뉴스에서 예화를 얻는데, 이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인물 중심의 이야기가 예화로서는 가장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론에서 쓰기에는 다소 무거워서, 결론이나 강조가 필요한 부분에 주로 사용합니다. 원리나 과학적인 이야기는 이해를 돕는 데는 유용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이 실제로 살아온 이야기가 가장 강력한 예화입니다.

저는 평소 독서를 많이 하는데, 읽는 중에 이것이 예화가 될 만한지를 분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문과 잡지에는 이야기가 넘쳐나지만, 그 가운데 설교에 쓸 수 있는 이야기를 골라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발견한 이야기는 따로 스크랩해 보관하고, 최근에는 AI를 활용해 더 깊은 배경 정보를 찾아 보완하기도 합니다.

7. 만약 앞으로 단 한 편의 설교만 더 할 수 있다면, 어떤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가능하다면 저는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모든 설교가 중요하지만, 어떤 설교든 복음이 빠지면 그 가치가 손상된다는 것이 제 오랜 확신입니다. 이는 신학교 시절 교수님으로부터 배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모든 설교는 전도적 설교(Evangelical preaching)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설교라 할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헌금하라고 권하는 것은 결국 돈을 내라는 말에 그치지만, 그 헌금의 동기가 복음, 곧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감격이 되어야 바른 설교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주제로 설교하든, 마지막에 짧게라도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든 결국 그 해답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한 편의 설교가 허락된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싶습니다.

8. 후배 설교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흔히 강단에서 30~40분간 전하는 것을 설교라고 생각하지만, 그 설교가 만들어지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설교자보다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설교자가 되려면 무엇보다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말씀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설교 기술만 배우려는 분들을 봅니다. 그러나 말씀은 파도 파도 끝이 없는 깊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평생을 두고 그 말씀의 우물을 계속 파내려 갈 때, 거기서 길어 올린 것이 비로소 생명 있는 설교가 됩니다. 예화나 세상 이야기도 유익하지만 그것은 양념일 뿐이며, 말씀이라는 견고한 기초가 먼저 있어야 다른 것들도 바르게 자리를 잡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본문과 회중의 필요를 연결하는 일의 중요성입니다. 설교의 현대화란 과거에 기록된 말씀을 오늘의 삶으로 끌어와 적용하는 것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를 위해서는 본문과 회중이 느끼는 현실적 필요가 반드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설교했는데 듣는 이가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So what?)"라는 반응을 보인다면, 그 설교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이 내 이야기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하겠구나" 하고 느낀다면 바른 설교가 된 것입니다.

1970년대 이후로 강조된 이야기식 설교(Narrative Preaching)는 전통적 설교가 지나치게 논리적이고 예측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보다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에, 본문보다 회중에 초점을 맞추자고 주장합니다. 프레드 크래독(Fred Craddock)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접근에는 분명한 장점이 있지만, 저는 위험성도 함께 봅니다. 본문(Text)보다 상황(Context)이 앞서게 되면, 설교자가 본문을 빌려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 혹은 회중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은 정교한 구성(plot)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을 철저히 강해하면서도 그 메시지의 본질을 희석하지 않고, 동시에 회중의 필요와 연결하는 설교를 늘 고민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예로 들면, 이야기를 아무리 잘 전달해도 "그래서 뭘 하라는 거냐"는 반응이 나온다면 설교는 전달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골리앗이 바로 나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이야기는 회중 각자의 이야기가 됩니다. 저는 그 연결의 작업이 설교학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